

교육평론

핀란드 교실 무작정 따라하기

박재원(비상교육 공부연구소)

핀란드 교육이 아니라 교실을 무작정 따라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일단 열심히 따라해 보자. 왜 그런 맹목적인 제안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글을 읽고 나면 알게 될 것으로 믿는다.

I. 한국과 핀란드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 결과에 따르면 핀란드가 다소 앞서지만 최상위권에서 호각지세를 보이고 있다.

	PISA 2000		PISA 2003		PISA 2006	
	한국	핀란드	한국	핀란드	한국	핀란드
읽기	6	1	2	1	1	2
수학	2	4	3	2	4	2
과학	1	3	4	1	8	1

하지만 PISA 결과를 단순하게 바라보면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호도하는 경향도 보인다.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운동만 하는 기계, 폭력의 극성과 같은 학원 스포츠의 문제점들이 사회적인 관심 범위 밖으로 밀려나는 현상과 비슷하다.

결과에서는 비슷한 면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과 핀란드의 교육은 극과 극이라는 말이 지나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와는 달리 핀란드는 통합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권한이 일선 학교와 교사들에게 주어져있다. 개선책 차원에서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수준별 수업의 경우도 핀란드는 그 폐단을 확인하고 폐기처분한 지 오래다. 최근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교원평가도 정말 다르다. 경쟁을 통한 압박용이 우리라면 핀란드는 보완책 도출을 위한 건강한 피드백으로서 교원평가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학교의 다양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핀란드 그 위험성을 경계하면서 학습의 다양화(학생 개성의 존중)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는 사교육비 부담이 측정 불가능한 수준으로 미미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 근본적인 차이는 영어몰입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영어몰입교육이라는 무늬만 같을 뿐이다. 원어민 활용을 강조하는 우리와는 달리 핀란드 영어교육 현장에는 원어민들을 찾아볼 수 없다. TV 프로그램을 통한 영어 배우기와 같이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영어 배우기 환경 조성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 영어보다는 영어 과목의 성적이 중요한 우리와는 달리 핀란드는 발음이 형편없고 어법에 맞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영어 활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비영어권 국가 중에서 가장 영어를 잘 하는 나라가 되었다(참고로 우리나라 사람의 영어 말하기 실력은 108개국 중에서 105위다).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차이는 사실 PISA 결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

해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학력의 격차 문제로부터 핀란드는 매우 자유롭다는 사실이다.

학교 사이의 성적 편차(중학교 3학년 기준)

핀란드	스웨덴	인도네시아	영국	미국	한국	일본
4.7	11.5	19.4	23.5	29.1	31.8	53.0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핀란드	스웨덴	인도네시아	영국	한국	미국	일본
1.3	6.1	8.0	14.8	16.9	18.9	29.0

<2006 OECD PISA 보고서>

부모의 소득수준과 학력의 차이가 교육을 통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심화되어 대물림하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볼 때 부러울 따름이다. 특목고와 일반고의 학력 차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현실에 비춰 핀란드는 이상향에 가깝다. 하지만 또 하나 PISA 결과로 확인할 수 핀란드와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으로 교육 생산성, 공부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2008년 10월 31일

나라	PISA 총점(순위)	학습효율화지수(순위)
핀란드	1658(1)	96.6(1)
한국	1625(2)	65.4(24)
일본	1552(7)	82.6(6)
영국	1505(15)	72.6(16)
미국	963(30)	43.3(30)
OECD 평균	1490	72.1

성적은 좋지만 효율은 크게 떨어지는 공부. 2등의 성적을 얻기 위해 대한민국 학생들은 초장시간 공부노동을 한 것이다.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핀란드 전문가의 시각에서 어떻게 핀란드 교육의 성공이 가능했는지 알아보자.

“교육제도를 성공시키고 평균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OECD는 학생들 간의 격차에 대해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사회와 경제는 학생 개개인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격차’를 염려하는 것은 ‘무척 단순한 경제적 필요성’에 기인한다고 잘라 말한다(21쪽).

교육제도나 평균성적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II. 핀란드 교실 무작정 따라하기

세계 최고 수준의 학력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취한 핀란드 교육의 장점을, 최근 필자가 번역하고 해설한 <핀란드 교실혁명>에서 살펴보자.

■ 핀란드 교실 무작정 따라하기 1- 교실의 분위기

핀란드의 높은 교육 생산성은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교탁 근처에 앉은 여학생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다. 특별지원교사가 불

어서 지도하는 줄 알았는데 교사치고는 너무 젊다. 수업이 시작된 후에야 사정을 알게 됐다. 그 두 사람은 커플이었던 것이다. 남학생은 껌을 씹으며 워크맨을 듣고 있다. 그는 기댄 채 여자 친구의 몸을 더듬는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두 명의 여학생이 난처한 표정을 지을 뿐, 다른 학생들은 커플을 무시한 채 수업을 받고 있다. 수업이 20분 정도 진행되었을 때 나글러 선생님이 다가와서 말한다. “깜짝 놀랐겠지만 차라리 이게 나아요. 남학생은 수업을 듣지는 않지만 적어도 학교에는 나오잖아요. 여학생은 대충이라도 수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마음을 잡으면 달라지겠죠.” (핀란드 교실혁명 230쪽).



오른쪽에는 커플인 두 학생이 사이좋게 수업에 참가하고 있다.

여자 친구가 칠판에 뭔가를 쓰는 동안 남학생은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다.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버젓이 ‘연애활동’을 하는 모습은 충격적이다. 선생님의 얘기를 통해 문제 학생에 대한 방관이나 방치가 아니라 교육적인 고민과 배려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폭언이 사라지고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교실 분위기를 개선해나가는 노력은 매우 소중하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이라는 공간의 분위기 개선은 잃

어버린 대한민국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되살리는 데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 애는 우리 반 학생의 언니예요. 1교시 수업이 없으면서 동생과 함께 이 교실에 있어도 되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태평한 대답이었다. 그 학생은 3학년이라고 했다. 학교는 집과 비슷한 생활의 장이었다(핀란드 교실혁명 101쪽).

학생들에게 반말 하지 않기 운동부터 실천해볼 것을 제안한다.

■ 핀란드 교실 무작정 따라하기 2 - 학생 개개인의 페이스대로

자발적인 공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열과 다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열을 자꾸 따지면 자발성이 죽지만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대부분 자발성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학급의 목표는 정해져 있지만 개인의 진도는 다릅니다. 똑 같은 것을 배우는 데도 두세 배의 시간이 걸리는 아이도 있으니 그 자리에서 반복시켜서 억지로 외우게 하지는 않습니다. 긴 안목으로 보면 모든 아이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목표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의욕(동기)이 중요하니까 ‘왜 안 되니?’ ‘어째서 안 되니?’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빼먹는 아이는 예외지요.(핀란드 교실혁명 110쪽).



과제를 끝내고 노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남아서 차분히 과제를 계속하는 아이도 있다. 무슨 일이든 자기 속도대로 한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을 관찰해보면 ‘난이도’의 문제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학생의 준비정도에 맞게 내용적인 난이도와 학습속도를 조절해주면 집중력은 다시 살아난다. 열심히 해보고 싶지만 잘 되지 않아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으로 둔갑한다.

커플인 여학생은 많이 틀렸는지 선생님이 차근차근 고쳐준다. 아무도 웃지 않고 그 여학생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냥 각자의 수준에 맞춰 배울 뿐이다. 그 열의가 전해지는 수업이었다. 22명의 학생 중 서너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업에서 낙오하지 않았다(233쪽).

우선 수준별 문제를 다양하게 준비해서 활용해봤으면 좋겠다.

■ 핀란드 교실 무작정 따라하기 3 - 수업과 자습의 통합

학생들은 수업시간보다는 자습시간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사소한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공부 생산성을 높이는 데 매우 핵심적인 변수임이

분명하다.

코르펠라 선생님이 책상 사이를 도는 동안 학생들은 떠들면서 서로 가르쳐주기도 하고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문제를 모두 푼 사람은 해답집으로 답을 맞춰보면서 틀린 문제는 다시 한 번 풀어본다. 코르펠라 선생님은 책상 사이를 돌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진도를 파악하고 도움을 준다(핀란드 교실혁명 245쪽).

수업은 선생님이, 자습은 학생이 책임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로 그 시간에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복습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누리게 될 학습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확신한다.

8시 45분. 워크북 작업에 들어간다. 하마라이넨 선생님이 처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복습을 시키고 이해도를 확인한다. 워크북 작업도 노트에 베껴 쓰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워크북에 그대로 써넣는 아이도 있다(핀란드 교실혁명 12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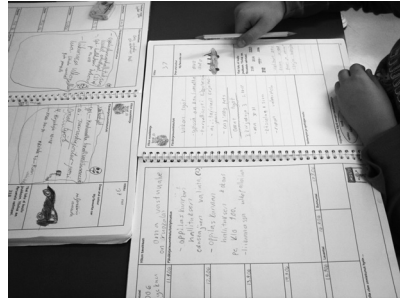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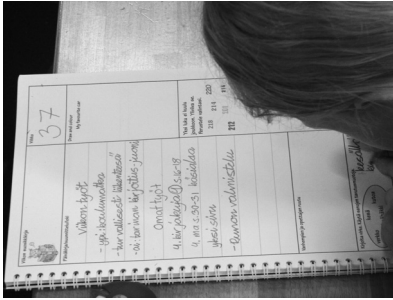
수업시간의 일부를 할애해서 수업 내용을 바로 복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이 어떨까?

■ 핀란드 교실 무작정 따라하기 4 - 공부계획을 수업시간에

공부 생산성은 효율적인 공부계획이 세워져 있을 때 보다 쉽게 높아지지 않을까? 학교수업 시간표만 가지고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시간과 자습을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왼쪽 페이지에 이번 주 테마를 교과별로 쓴다. 과학은 ‘통학로의 교통안전’, 핀란드에서는 이번 주에 이 테마로 수업을 하게 되어 있으나 보다는 ‘이야기를 쓰는 법’, 영어는 ‘My Pets’다. 다음은 자신의 목표를 구체적

으로 적는다. 다음 진도로 국어의 교과서는 3학년은 18~19페이지, 4학년은 16~18페이지다. 수학은 3학년이 30~31페이지이고 4학년도 30~31페이지이다. 쓰기는 3, 4학년 공통교과서의 1~2페이지이다(핀란드 교실혁명 129쪽).



먼저 선생님이 말해준 필수 사항을 적는다. 노트(공부계획장)이 점점 채워진다.

우리나라에서 스터디 플래너가 널리 보급되어 있다. 하지만 제대로 활용해서 효과를 보는 경우는 얼마 되지 않는다. 주로는 서툴기 때문에 몇일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수업시간 중에 공부계획을 세우고 선생님과 함께 점검한다면 그 학습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날은 금요일이었다. “그럼 일주일 진도를 점검합시다.” 후스카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모두가 학습계획표에 일주일 간의 학습에 대한 자기평가를 써넣는다.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수업 중에 주간 정리를 하는 것이다(핀란드 교실혁명 103쪽).

핀란드 교실에서 당장 배워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수

업시간 활용이 어렵다면 개인별 점검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핀란드 교실 무작정 따라하기 6 - 교사의 역할

강의력을 뺏내는 인터넷 수능강사가 학교 선생님들에게 말한다. 자신들을 보고 배우라고. 선생님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가 되었다.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배우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수학교사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과목을 배우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라는 뜻이다. 즉 지식이나 기능의 전달만이 아니라 학습하고 발전하는 인간을 키우는 것 자체가 교육의 목적이고 교사의 일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배우는 인간을 키워내는 것은 이런 교사의 자세 덕분에 가능하다(핀란드 교실혁명 206쪽).

<핀란드 교실혁명> 71쪽, 표1-4 학력 대조표

	넓은 학력관	새로운 학력관
교육관	계통적인 지식 · 기능(유일성)	목적적인 지식 · 기능(다양성)
	계획적인 주입 · 습득 (성과비교)	각 주체가 획득 · 구조화 (성과비교 불가)
	교사가 교육을 주도	교사는 학습을 지원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TIMMS(국제 수학 · 과학 교육 동향 조사)의 학력관	PISA의 학력관
교육과정	교과기반 커리큘럼	컴퍼턴시(역량)기반 커리큘럼

강의라는 형식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정해진 교과과정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교사 역할의 전부가 될 수 없다. 뛰어난 강의력이 오히려 학

생 스스로 고민하고 모색하는 자기주도성을 훼손하는 부작용 또한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교사는 배움을 격려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진도에 맞추어 언제나 도와 줄 태세를 갖추고 있다(핀란드 교실혁명 38쪽).

주입식 교육에 젖어있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살려낼 수 있는 수업모형과 교사 역할의 재정립이 절실하다.

■ 핀란드 교실 무작정 따라하기 7-시험에 대해서

학생들은 분명히 말한다. 공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공부를 정말 싫어하는 열등생들의 철부지 욕망이라고 보기에 는 시험의 폐단이 너무도 심각하지 않은가?

흔히 능력이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자유롭게 발달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시험은 자유로운 경쟁이 아니다. 경쟁을 하려면 게임의 규칙처럼 어떤 평가척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경쟁은 그 규칙에 얽매이게 된다. 시험을 향해 짜여진 교육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대해 규칙을 정해버리기 때문에 교육 본래의 목적인 능력 향상을 제한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되어 버린다. 쉽게 말해서 학력평가로 점수경쟁을 시키면 시험에 나올 부분만 공부하고 그 이상은 배우려고 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시험경쟁을 하면 정말 필요한 실력은 그다지 길러지지 않는다(핀란드 교실혁명 22쪽).

대한민국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은 시험이지 공부가 아니라고 확신한다. 획일적인 시험공부를 싫어하는 것이지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배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다고 믿는다.

게다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주입된 지식이나 급조한 기능은 시험이 끝나

면 거의 다 잊혀지는 법이다. 말하자면 시험을 위해 한 공부는 대개 낭비된다. 이런 낭비를 제거하면 핀란드처럼 느긋한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핀란드 교실혁명 22쪽)

우리나라에서 서열 매기기가 아니라 발전적인 피드백을 위한 핀란드 방식의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요원한 일이다. 하지만 가급적 기회가 될 때마다 공부의 목적을 재미와 의미에 두라는 얘기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야 결과적으로 시험도 잘 보게 된다는 말까지 곁들여서, 최소한 시험성적을 무기로 학생들을 압박하는 일만큼은 없애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숨어있는 학습 잠재력을 살려내지는 못할망정 죽이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핀란드 교실 무작정 따라하기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한다.

잘 하는 아이한테만 맞추면 수업은 빨리 진행될지 모르지만 못하는 아이가 의욕을 잃어버리죠. 아! 일본은 한 반이 40명이라고요? 20명이면 기다릴 수 있지만 40명은 기다리기 힘들겠는데요. 음, 20명 이상은 무리예요.(213쪽)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학교는 핀란드의 2배를 넘는다. 이런 현실은 지금까지 언급한 ‘핀란드 교실 무작정 따라하기’가 공염불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OECD 2007년 교육지표

	초등학교	중학교
한국	28.0	20.8
일본	19.4	15.0
미국	14.9	15.1
핀란드	15.9	10.0
OECD	16.7	13.7

교사 1인당 학생 수 말고도 난제가 산적해있다. 잡무에 시달리는 우리 교사들에 비해 핀란드 교사들은 ‘학부모나 행정기관도 교사를 지원’(60쪽) 하고 있다. 온갖 규제에 시달리는 우리 현실과는 달리 핀란드는 ‘거의 모든 권한은 일선 학교로 위임, 관리나 감시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인력이 없어졌고 결과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수 있었다. 게다가 지식(교육과정)은 국가 관리에서 해방되어 학습 주체가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 되었다.’(23쪽) 또한 ‘아이의 능력에 맞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커리큘럼과 교재가 짜여 있다.’(95쪽)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편견이 난무하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핀란드는 ‘뒤떨어졌다든지 특수하다든지 하는 구별은 하지 않아요.’(159쪽) 하지만 죽어가는 우리의 교육을 그저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그 어떤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핀란드 교실에서 배울 것은 배우자고 나선 것이다.

Ⅲ. 새로운 아젠다를 찾아서

핀란드와 한국 교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육 생산성 측면에서도 더욱 그렇다. ‘시험을 위해 한 공부는 대개 낭비된다.’는 말을 떠

올리면 평가제도와 경쟁풍토의 개선 없이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회의가 드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핀란드 교육이 아니라 교실 무작정 따라하기를 제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사들도 사육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무작정 따라하자는 맹목적인 제안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것저것 사정을 너무 많이 알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던가. 단순해야 용감해질 수 있고 그래야 일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런 맹목성에라도 희망을 걸어야 할 만큼 우리 청소년들은 심각하다. 교실마다 자살 대기자들이 한 두명씩 있다는 말을 실감하지 못하는가?

2004~2008년 자살자 통계(20대 이하), 경찰청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	2.2%	2.1%	2.6%	2.8%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대안은 바로 공부 효율성을 높여서 초장시간 공부노동으로부터 조금은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자지도 운동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오로지 공부에 매달리다보니 청소년기의 자기성장에 매우 긴요한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조차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기사에서 점점 ‘약골’로 변질되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공부문제는 단순히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청소년 전체의 정상적인 자아성장의 토대를 근본부터 위협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① 각국의 수면시간 비교(단위: 시간, 분)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
15-24세	0:13	0:37	0:13	0:24	0:26	0:22

② 각국의 운동시간 비교(단위: 시간, 분)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
15-24세	7:30	8:47	8:36	8:06	8:26	8:31

③ 참여 및 자원봉사활동 국제비교(단위: 시간, 분)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
15-24세	0:01	0:08	0:05	0:11	0:05	0:07

사교육 문제 해결의 열쇠 또한 ‘공부 생산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 교실의 낮은 교육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교육에 대한 숨통 조이기를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교실의 낮은 생산성은 결국 사교육 욕구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질적인 경쟁인 아니라 양적인 경쟁을 강요한다.

고3 학생들의 학습시간과 수능점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1주일에 과외를 제외한 학습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날 때 수능 백분위 점수가 각 영역별로 0.35~0.4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과목별 과외 교습시간은 수능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분석은 과외 여부가 수능 시험성적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학습시간 자체의 증가로 인한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다(고3 수험생들의 시간활용과 사교육의 효과, 김진영, 한국교육 2007. Vol 34).

사교육은 그 효과의 확신에 따른 선택이 이미 아닌 상황이다. 교실의 낮은 공부 생산성은 불안감을 낳고 그 결과 사교육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는 식이 되어버렸다.(학교 수업만으로는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비교해보면 501점으로 57개 나라 중 28위(핀란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모두 피로감에 찌들어 있으면서도 다람쥐 쳇바퀴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모두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나만 내려올 수 없다는 심정을 어떻게 타할 수 있단 말인가? 해결책은 쳇바퀴에서 내려와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사회적인 확대재생산이다. 사교육 효과가 아니라 공부 생산성 높이기 효과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감 조성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핀란드 교실 무작정 따라하기를 통한 우리나라 학교 교실의 교육 생산성 높이기라고 주장한다.

핀란드와의 우리나라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실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을 정치와 경제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그것이다. 1972년부터 91년까지 국가교육청장을 지낸 에르키 아호의 사례가 상징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은 자기 갈 길을 가는 나라가 바로 핀란드다. 진화가 아니라 파행의 역사를 거듭해 온 우리 현실에서 교육 생산성, 공부의 효율성 높이를 아젠다로 삼으면 그래도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낙관에 희망을 건다. 양적 경쟁에서 질적 경쟁으로, 사교육 시키기 경쟁에서 학습 효율성 높이기 경쟁으로! 대한민국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과제로부터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교육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나타나는 각계각층의 반응을 보면 파행적인 우리 교육에 대한 ‘한’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정서적 낭패감에서 벗어나 보다 생산적인 논의의 장으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갈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도적인 한계와 심각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무작정 따라하기를 통해 일본의 아키타현 사례처럼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성공사례가 나온다면 그것이 분명 제도 개선의 기폭제가 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성세대로서 반성한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태어난 국적과는 상관없이 환경이 바뀌자 모든 학생들이 자신을 위해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게으르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을 무조건 비난해야 할지 아니면 그들 스스로 공부하도록 키워내지 못한 사회를 비난해야 할지 한 번 생각해볼 문제이다(핀란드 교실혁명 39쪽).

더 이상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고 아이들 탓하지 말자.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어디 있단 말인가? 불쌍한 아이들 탓하지 말고 기성세대들의 진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했으면 한다. 기성세대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의 청소년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